

한국 전통도자에 나타나는 의미창출을 위한 융합 표현 연구 -식물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윤승연¹, 박중원^{2*}

¹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학생, ²국민대학교 도예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nvergence Expression in Traditional Ceramics -Focusing on the Symbolism of Plants-

Seung-Yeon Yoon¹, Jung-won Park^{2*}

¹Student, Department of Ceramic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Ceramics, Kookmin University

요 약 한국 전통도자에 적용된 식물의 시각적 표현은 우리 민족의 의식과 정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길상(吉祥)적 염원(念願)과 벽사(辟邪)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도자의 형과 장식의 표현, 그리고 그들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다채로운 의미로 확장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도자에서 보이는 융합표현의 현상을 형과 형, 형과 장식, 그리고 장식과 장식으로 구분해 그것들의 특별한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전통도자에서 활용된 식물의 형과 장식의 특징을 문헌적 정보를 바탕으로 고찰한다. 2장에서는 의미를 담은 형과 장식의 배경이 되는 식물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식물들의 특징과 의미를 기반으로 형과 형, 형과 장식, 장식과 장식의 융합 형태로 구분하고 그들의 융합현상을 통해 새롭게 발현된 의미를 제시한다.

주제어 : 융합, 식물, 전통도자, 형, 장식

Abstract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plants applied to traditional Korean ceramics is based on the consciousness and sentiment of the Korean people, and one can see the auspicious aspirations and exorcisms that people pursued at that time. These symbolic expressions have been extended in new and colorful meanings through the shapes and decorations of ceramics and their fusion.

In this study, the phenomena of convergence expression seen i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are divided into type and type, type and decoration, and their special meaning is analyzed. For this purpose, the shapes and decorations of plants used in traditional Korean pottery are considered based on the literature information. Chapter 2 gives a general analysis of plants that have meanings in their shapes and decorations and introduces their meanings. In Chapter 3,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plants, it is divided into shapes and shapes, shapes and decorations, and the convergence of decorations and decorations, and presents newly manifested meanings through their fusions.

Key Words : Convergence, Plant, Traditional ceramics, Shape, Decoration

*Corresponding Author : Jung-won Park(pjw9357@kookmin.ac.kr)

Received September 2,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September 18,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은 생활 속에서 자연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내왔다. 자연과 함께 인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의 해답을 찾고, 일상의 고단함을 위로받아왔다. 특히, 인간은 자연의 꽃, 나무 등의 식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시에 그 안에서 미적 요소를 찾아 일상 용품의 형상과 장식을 위한 표현 소재로 응용해왔다. 또한 사람들은 식물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것들의 형, 색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염원을 표출했다. 우리의 선조들은 모란도(牡丹圖)를 집 안에 걸어놓고 가정의 평화와 부귀를 기원했고, 사군자가 그려진 도자기를 보며 군자의 덕목을 다시 되새겼으며, 국화문 떡살로 떡을 빚어 먹으며 장수를 바라는 길상적 염원을 담아 왔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식물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도자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용적 도구로서 이러한 길상적 의미를 담은 형과 장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자기에 식물을 모티브로 한 형과 장식을 적용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염원과 신앙을 담은 도자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려청자부터 조선백자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도자에 사용되었던 식물을 응용한 형과 장식을 조사 분석하여 각 형태와 장식에 담긴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전통도자에서 보이는 다양한 융합표현의 현상을 형과 형, 형과 장식, 장식과 장식으로 구분하여 그것들의 특별한 의미를 발췌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도자에서 보이는 다양한 융합표현에 의한 우리 민족의 특별한 표현 방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식물을 모티브로 한 형과 장식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도자 문화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물론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는 한국 전통도자에서 보이는 식물에 대한 길상적 형과 장식, 그리고 그들의 융합표현의 분석을 통해 도자 및 문화의 특징과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전통도자에서 식물을 통한 다양한 길상적 형과 장식에 대한 배경 분석과 특징을 조형 및 융합연구의 관점에서 소개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에 있어서 한국 전통도자의 대표적 장르인 고려청자부터 조선백자에서 보이는 형태와 문양을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인 융합표현의 내용 연구는 국내의 문헌, 공식문건 및 언론 보도,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통 도자에서 새로운 의미 창출로서의 융합표현 현상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한국 전통도자에서 보이는 식물을 활용한 형과 장식의 특징을 문헌자료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찰했다. 새로운 의미 창출을 위한 형과 장식의 배경이 되는 식물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그것들의 독특한 특징과 의미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식물들의 특징과 의미를 기반으로 형과 형, 형과 장식, 그리고 장식과 장식의 융합 형태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발현된 의미와 특징을 제시한다.

2. 전통도자에서 식물의 일반적 고찰











2.1 분류







인류 역사에서 도자기는 지역과 장소, 수요 계층 등에 따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 사회·문화적 변천과 미술사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자에서 형과 장식으로 적용된 다양한 식물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그것들만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물의 형과 장식은 민족문화의 가치에 의해 고정되고 표상된 미술로서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특성과 실체를 가장 뚜렷하게 반영한다. 그러므로 각 시대에 적용된 식물을 응용한 형태와 장식에 관한 연구는 그 시대의 문화, 정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배경을 살펴보고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래의 표에서 한국 전통도자에서 보이는 식물들을 상징적 특징과 함께 분류해 정리하고자 한다.

2.2 식물의 특징적 구분

전통 도자에서 식물을 응용한 형과 장식은 이상적인 삶에 대한 현실적 기원을 위탁하는 주술적 대상으로서의

Table 1. Classification of plant symbolism in Korean traditional ceramics

Orchid	
	Orchids, known as one of sagunja(Four Gracious Plants) along with plum porridge, represent the virtues of sagunja(Four Gracious Plants) Symbol of fidelity, represent loyalty, and is frequently seen in blue and white porcelain.
Arabesque	
	Stretching through the winter and making vines. This represents a strong vitality and means longevity.
Plantain	
	Plantain have the vitality to withstand winter and fire. Symbol of longevity and revival
Bamboo	
	Bamboo is hollow but flexible and has strong characteristics. Maintaining the same appearance throughout the four seasons symbolizes the dignity and fidelity of Gentlemen.
Willow tree	
	This symbolizes the mercy of Bodhisattva along with cleanliness and docility. The Chinese character "yu" is a combination of "mok" and "myo". "Myo" means the spring sun in the east and this is known to drive away evil spirits.
Pine tree	
	Symbol of fidelity and integrity Staying blue in winter. The life of the pine tree for a thousand years, and the pumpkin with the coagulation of sap, are symbols of longevity.
Peony	
	Peony is called the king of flowers and its splendor represents wealth and honor. It symbolizes femininity and also represents a peaceful family
Lotus	
	Lotus flowers grow in muddy water but have beautiful flowers. The nature of the lotus symbolizes Buddhism. Lotus flowers bear flowers and fruits at the same time, which has a symbolism that allows people to have offspring in succession.
Chrysanthemum	
	Chrysanthemum is one of the sagunja(Four Gracious Plants) and does not lose its innocent appearance even in the late frost. It symbolizes auspiciousness, longevity, and fidelity.
Plum blossom	
	The plum blossoms of spring are a symbol of purity and loyalty, showing the fragrance and beauty. It symbolizes longevity because it has the vitality to survive the winter. The Chinese pronunciation of plum blossoms is the same as that of "nui," which also symbolizes the health of unmarried women

Calabash	
	People believed that it was spiritual to defeat demons and eliminate diseases and poisons, leading to longevity and wealth. Resembling male genitals to symbolize children.
Korean melon	
	As vine hands stretch out, there are many fruits and seeds, so it often symbolizes the prosperity of offspring.
Peach	
	The most representative symbol of peach is longevity. In most Korean ceramics, peaches are made with Water Droppers
Grape	
	Symbol of endless offspring, such as the constant spread of grape vines
Pomegranate	
	The sour taste of pomegranates is palatable to pregnant women and there are many seeds in the red pockets. Symbol of the birth of a son and the prosperity of offspring
horned orange	
	Fruit belonging to the citrus family and its shape resembles the finger of a Buddha. This is considered a symbol of blessing because the pronunciation is similar to that of Chinese characters[1].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 민족의 상징적 기호에 의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형과 장식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으로 또는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자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형과 색, 그리고 표면에 시문된 문양에서 이러한 의지와 의식이 담겨져 있다. 본 장에서는 식물의 특징적 양상을 길상, 벽사, 상징으로 구분해 설명하며, 상징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표적 영향을 끼친 불교와 유교적 상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2.1 길상(吉祥)

길상이라는 말은 ‘아름답고 착한 징조’라는 뜻으로 운수가 좋을 조짐, 경사가 날 징조를 뜻하고 있다[2]. 한국의 전통 장식과 형은 감상을 목적을 넘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생활을 순조롭게 하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평안, 장수, 화목, 건강 등 생활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관념적 요소를 상징하고 있다.[3] 사람들은 자신의 집안에 길상적 의미가 담긴 그림이나 공예품을 들으면 염원하는 운수가 들어온다고 믿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기원을 담아가며 그림을 그리고, 수를 놓고, 조각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도자에 표현된 식물의 길상적 의미를 4개의 대표적 염원인 무병장수(無病長壽), 부귀공명(富貴功名), 자손번창(子孫繁昌), 가정화평(家庭和平)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다.

Table 2. Auspicious signs of plants expressed in Korean traditional ceramics

good health and longevity	plantain pine tree plum blossom peach chrysanthemum
Become rich and famous.	bamboo peony
have many children	orchid arabesque lotus chrysanthemum calabash Korean melon grape pomegranate
a peacefu family	peony

2.2.2 벽사(辟邪)

벽사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귀(邪鬼)를 물리친다는 뜻이다. 문양에 있어서 벽사는 주술성을 강조하여 실현하는 경우와 미리 길상의 축원으로 사악한 존재의 근절을 막는 경우, 우주나 자연의 이치에 순응함으로써 사악한 능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미적 요소로 출현한 경우가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도자에 응용된 6개의 식물(조롱박, 버드나무, 복숭아, 대나무, 난초, 소나무)을 통해 벽사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Table 3. Signs of drive away evil spirits in plants

calabash
Horo means a gourd bottle and is also called Pyotan. In folklore, people believed that ghosts would run away when they saw a gourd. So,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y hung a gourd bottle on the waist of the children with a red thread. In Taoism, a god always carries a gourd containing sacred medicine to cure a person's illness. Therefore, this gourd has a meaning to defeat the devil and detoxify the poison.
willow tree
The Chinese word "yu" is a combination of "mok" and "myo".

"Myo" means the spring sun in the east. Willow trees are known early on to repel evil spirits. It is said that breaking May's willow tree and hanging it on the door can defeat evil spirits.
peach
Peaches have the meaning of driving away ghosts since ancient times. Peach trees are often used as a shamanic tool and are often made as amulet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a folk custom of making brooms out of peach trees and sending out evil spirits and welcoming the New Year. Even now, people do not take peaches to ancestral rites because they are worried that their ancestors would not come if they had peaches.
bamboo
Bamboo is used in exorcism because it has the effect of driving out ghosts. According to Seonghyeon's "Yonghyeonchonghwa," people made brooms on New Year's Eve by gathering bamboo leaves, branches of Kalopanax, stalks of Leonurus japonicus and bamboo branches stretching eastward. They swept the doors with the broom while playing the jing and kkwaenggari. This custom was described as a practice of exorcising evil spirits.
orchid
In "Shennong Ben Cao Jing" it is recorded that growing orchids prevents bad things from happening in the family. Also if you drink them for a long time, it detoxifies body and makes body feel lighter, also slows down aging. Hanging an orchid painting inside the house and wishing to exorcise ghosts.
pine tree
Pine trees are the spirit of korean people, and ancestors regarded pine trees as sacred trees that protect them. Before the fifteenth of lunar January, there are national customs such as placing pine branches in front of doors, roofs, eaves, or sprinkling pine needles inside doors to prevent evil spirits[5].





2.2.3 상징(象徴)

가. 불교의 상징

고려 불화(佛畵)에서 보이는 식물을 소재로 한 불교 문양들은 크게 원화문(圓花文)과 연속화엽문(連結花葉文)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분류법은 불화뿐만 아니라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고려청자의 다양한 식물문에서도 등장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원화문은 원의 형상 안에 시문된 여러 가지 식물문양을 말하며, 연속화엽문은 식물의 넝쿨이 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표현된 문양이다. 특히, 원화문은 불교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방식으로 당시에 유행하던 청자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문양이다.

첫째, 원화문(圓花文)의 둥근 원은 불교에서는 일원상(○)은 부처와 보살의 형상을 둘러 싸고 있는 원륜(圓輪)이자 원불교에서는 본 우주와 인생에 관한 궁극적 진리

Table 4. Circular flower pattern in Goryeo celadon

Circular arabesque pattern	Circular chrysanthemum umr pattern	Circular lotus pattern	Circular peony pattern
			

의 상징으로서,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예술·과학 등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6]. 원화문은 우주 진리를 상징한 불화인 만다라의 이미지를 불러 오게 한다. 고려청자에 나온 원화문 속 식물은 큰 줄기와 작은 줄기가 꽃과 잎이 함께 'S'자 모양으로 이루며 화려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이라는 형상 속에서 정리되어 안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둘째, 연속화엽문(連結花葉文)은 모란이나 당초(唐草) 등의 넝쿨이 큰 줄기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는 형상을 말한다. 주로 기물의 목이나 어깨에 띠 모양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원화문에 비교해서는 규칙적인 패턴형식으로 도안화가 되었다[7].

나. 유교의 상징

유교적 미의식의 이해는 조선시대의 문화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현실적 사상이 민중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어 삶 속 실질적인 면에 치중하게 하였다. 그 영향은 조선시대의 도자기인 백자 등에도 영향을 주어 당시에 제작된 기물은 단순한 장식용뿐만 아니라 실용성 역시 강조되며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과장과 허세를 피하고 소박한 성격의 문화와 미술이 이 시대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유교적 미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미술사상이 가장 자연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보였던 사실도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배경이나 미의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8]. 특히, 조선시대 도자기에서 보이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화, 소나무는 유교적인 의미와 상징을 비추고 있다. 식물 하나의 개체로 표현되었을 때보다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세한삼우(歲寒三友) (대나무, 매화, 소나무)로서 융합되어 표현되었을 때 군자의 상징과 유교적 의미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3. 식물을 응용한 융합표현

정보혁명과 스마트혁명을 거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융합 현상은 이제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대표하고, 함축하는 것 이상의 문화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지 오늘날의 현상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합쳐지고,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함과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시대적 현상은 항상 있었던 일이었다[9]. 특히, 도자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각 시대의 대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방식으로 존재해왔다[10]. 즉,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배경을 기반으로 도자는 지역, 문화권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와 장식, 그리고 기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로운 작용에 의한 이질적 대상 간의 뒤섞임, 다양한 양식의 공존, 여러 매체의 수용으로 설명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융합이 가능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 창출을 시도했던 한국 전통도자의 형과 장식에 관해 연구한다. 특히, 식물을 모티브로 한 형과 장식을 형과 형, 형과 장식, 그리고 장식과 장식의 결합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그것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1 형과 형

한국의 전통 도자에서 보이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형상(形象)은 고려시대 상형청자(象形靑瓷)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형으로 표현된 식물 중 복숭아, 연꽃, 참외, 표주박, 죽순, 석류 등은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특히 표주박, 참외, 죽순은 주전자와 병 등의 형태에 기반이 되었다. 전통 도자에 형과 형으로 융합된 식물의 상징성을 분석하고 융합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의미를 분석한다.

3.1.1 참외+국화



Fig. 1. Mixed Glaze Korean Melon-Shaped Teapot

참외와 국화의 형태적 융합의 모습을 보이는 잡유참외 모양주전자(雜釉瓜形注子)는 전형적인 상형 주전자로 몸통에서는 참외의 형상을 보이며, 주전자의 뚜껑 손잡이,

그리고 어깨 부분에서 국화가 표현요소로서 사용되었다. 참외는 냉쿨식물로서 줄기가 뻗어나가고, 과육 안에 씨가 많아 자손번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화는 초겨울 추위 속에서 본 모습을 잃지 않는 높은 절개의 의미를 지닌 꽃이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국화 문양은 소국(小菊)은 길상, 대국(大菊)은 정토(淨土)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잡유참외모양주전자에서 보이는 국화는 대국의 형과 유사하다. 참외가 의미하는 자손번창과 국화의 절개, 정토의 상징은 융합되어 자식이 영화를 누리길 기원하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절개는 유교의 덕목이고 정토는 부처가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말한다. 부모가 바라는 자식의 삶의 자세가 두 식물의 융합으로 상징적 의미가 나타난다.

3.1.2 표주박 + 연꽃



Fig. 2. Celadon Ewer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전자(靑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는 가늘고 긴 형태로 아랫부분의 곡선이 풍만한 전형적인 표형(瓢形) 주전자이다. 아랫부분의 원형과 윗부분에서의 각진 마감 형식은 연꽃이 피기 직전의 연봉(蓮峯)의 모습과 표주박의 융합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단과 하단의 골 부분에서 연꽃을 들고 있는 인물형 상형장식이 보인다. 이것은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전자에서의 연꽃이 장식요소로서 표현을 넘어 융합을 통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전자의 기반이 된 표주박은 자손번창의 의미가 있으며, 연꽃의 청결한 생명력은 불교의 상징이다. 특히 주전자에서 보이는 오프라진 연봉은 합장한 손으로 비유되는데 합장한 강한 불심(佛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전자를 통해 고려시대의 불교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기도를 통해 자식을 기다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불성(佛性)이 화려하게 표현되어 고려의 귀족들의 취향의 결과물로서 애호되었을 것이다. 화려하지만 청결을 추구했던 불교의 사상과 철학이 보이며, 부처의 삶을 닮아 가고자 했

던 고려인들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3.1.3 표주박 + 참외



Fig. 3. Celadon Gourd-Shaped Teapot

청자표주박모양주전자(靑磁瓢形注子)의 기본 형태는 표주박형 주전자로 '8'자 모양의 곡선형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청자에서 보이는 가늘고 긴 일반적인 표형주전자보다는 투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세로선의 굵은 양감은 참외형에서 보이는 표현양식이며, 둥글고 짧은 기형이 표주박형과 참외형의 형과 형이 융합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표주박은 다산과 장수의 의미와 마를 물리치는 벽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참외는 자손번창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 식물 상징적 표현의 융합을 통해 자손번창에 대한 강한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3.2 형과 장식

한국 도자에서 나타난 식물 중엔 자손번창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참외형과 다산과 장수 그리고 벽사의 다양한 상징을 담고 있는 표주박형을 기반으로 제작된 기형들이 많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시한 내용으로 도자기를 비롯해 일상용품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 도자기 형태의 표면에는 분청기법부터 청화, 철화 기법까지 다양한 장식표현과 함께 구성되어있는데 장식을 구성하는 문양들의 반복되고 단순화되면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강조되어있다. 전통 도자에서 나타나는 참외형과 표주박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식표현과의 융합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3.2.1 참외형 + 장식

삼국시대 중국을 통해 들어온 참외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름과일이다. 고려시대부터 맛이 좋아 선호되던 과일이었으며, 현재에도 노란 참외를 본격적으로 재

배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외국에선 'Korean melon'라는 이름으로 불린다[11]. 그만큼 참외는 한국에서 익숙한 과일로서 오랫동안 한국 미술의 소재로 사용되어왔다. 참외는 병과 주전자 형태에 응용하기 좋은 적합한 조형성을 갖고 있어 도자기의 형태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과일을 소재로 한 상형청자 중 참외 모양청자가 가장 많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12]. 또한, 참외를 소재로 한 도자들은 참외의 세로 선의 양각을 응용하여 전반적인 볼륨감을 살렸다.

전통 도자에서의 참외의 형태는 꽃이 맺힌 참외의 형태와 기본 참외의 형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꽃과 함께 표현된 참외의 형태는 주자 또는 병(瓶)으로, 참외 형태는 주자 또는 호(壺)로 표현되었다.




Table 6. Classification of Korean melon shape in Korean traditional ceramics

flowers and Korean melon		Korean melon	
			

대부분의 참외형 기물에 나타나는 표면 장식은 참외의 세로선의 굴곡에 맞춰 장식이 새겨져 있다. 이 장식들은 연꽃, 모란, 포도 등의 식물들이 모티브로 주로 시문되었다.

참외는 성장하면서 넝쿨을 만들고, 과육 안에 많은 양의 씨를 갖고 있다. 이런 참외의 특성은 자손을 번창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화(蓮花)문은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 꽃으로 순결과 청결함, 그리고 다산, 환생(幻生)을 의미하며, 모란문은 가정평화와 부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포도문은 다남(多男), 다복(多福)의 의미로 이해되어왔다. 참외 형과 함께 나타난 식물문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Table 7. Convergence of Korean melon-shaped and decoration

korean melon-shape (wish child's prosperity)		
		
iron glaze lotus-pattern Korean	Celadon fruit-shaped Teapot	blue and white Porcelain




melon-shaped bottle		grape-pattern fruit-shaped teapot
lotus-pattern (symbolizes Buddhism)	peony-pattern (have a happy family)	grape-pattern (have many children)
desire for a child through Buddhist prayers.	hope to have a happy family with a child.	want to have a child, especially a son.

3.2.2 표주박형 + 장식

요리의 재료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표주박은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식물이다. 약용과 식용으로 쓰이며 물이나 술을 담거나 반을 쪼개 물을 풀 수 있는 쓰임을 갖고 있다. 표주박의 상징적 의미로는 민속신앙에서 표주박을 보면 두창신(痘瘡新)이 달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어 마를 물리치고 병과 독 없애준다고 한다. 또한 표주박은 씨가 많은 열매이며, 모양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여 다산을 상징한다. 표주박의 다양한 역할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익숙함을 주었고, 한국 전통도자에서 형을 표현하는 주제로 자주 사용되었다[13].

한국 도자에서 표주박 모양은 대부분 병과 주자로 표현되었는데 특히 청자에서 다양한 장식들과 함께 많이 나타났다. 표주박 형과 장식과의 융합표현으로 유추되는 상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8. Convergence of Gourd-shaped and decoration

Gourd-Shaped (wish child's prosperity)		
		
Celadon grape-pattern Gourd-Shaped Teapot	Celadon peony-pattern Gourd-Shaped Teapot	Celadon chrysanthemum-pattern n Gourd-Shaped Teapot
grape-pattern (have many children)	peony-pattern (have a happy family)	chrysanthemum-pattern (longevity and fidelity)
want to have a child, especially a son, a safe childbirth.	hope to have a happy family with a child.	wish the children's wellness

3.3 장식과 장식

한국 전통도자의 장식에서 보이는 식물은 다른 종들과 융합되었을 때 새로운 이름과 함께 더욱 강력한 염원의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교적 상징에서 언급하였던 사군자와 세한삼우는 군자의 상징을 가진 식물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고 강한 상징적 의미가 생성되었다. 대표적으로 사군자(四君子)와 세

한삼우(歲寒三友)를 이용해 융합된 식물장식의 배경과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Fig. 3. (L)Blue And White Porcelain Octagonal Angle Four Gracious Plants Water Droppers.
(R)Blue And White Porcelain Pine Bamboo Chinese Plum-Patterned Angle Bottle.

3.3.1 사군자(四君子) /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사군자란 매화(梅花), 난초(蘭草), 국화(菊花), 대나무(竹)를 일컫는 말로써 각 식물의 특유의 장점을 덕(德)과 학식을 갖춘 선비의 인품에 비유하여 부르는 말이다. 매화는 초봄의 추위를 이겨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난초는 깊은 산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고, 국화는 늦은 가을에 추위를 이겨내며 피고, 대나무는 모든 식물의 잎이 떨어진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한다. 이들 각각의 성질은 군자가 지녀야 할 품성이라고 여겨 조선시대 선비들은 시나 그림으로 즐겨 표현했으며, 일상 용품의 도자기에서 형과 장식으로 응용되었다.

3.3.2 세한삼우(歲寒三友) / 소나무 매화 대나무

겨울의 추위를 견디는 송(松), 죽(竹), 매(梅)의 고결한 절개를 선비에 비유하여 말하는 것으로 매(梅), 수선(水仙), 죽(竹)으로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의 뜻은 『논어(論語)』에서 말하는 ‘세한송백(歲寒松柏)’으로 고난을 만나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군자에게 비유하는 것[14]으로 사군자와 함께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다.

4. 결론

선사시대의 암각화의 내용에는 인간의 삶의 기원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환경은 물론 그들의 염원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그림을 새기며 ‘식물을 채취할 수 있길’ ‘경작하는 식물이 잘 자라길’ 바랐을 것이다. 새겨진 그림 속

에는 그린 사람의 의도된 동기가 담겨있다. 또한, 인간은 주변에서 발견하는 식물을 보며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바람을 염원할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인류의 삶을 대표하는 도자기에서 식물은 미적가치를 넘어 상징적인 존재로 응용되어왔고, 현재에도 도자기의 형과 장식의 표현에 중요한 소재로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 전통도자기에서 표현된 식물의 조형적 특성은 우리 민족의 의식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15]. 식물의 시각적 표현 속에는 정신적 풍요를 넘어 만든 이의 의도된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그 의미는 우리 민족의 의식과 정서를 통해 구성되어있으며, 당시 선조들이 원하는 길상적 염원과 벽사를 볼 수 있다. 전통 도자에 많이 등장하는 16개의 식물의 상징성은 자손번창은 7, 벽사는 6개, 장수와 절개는 5개, 불교적 상징은 3개였으며 여성과 부귀에 관한 식물은 각각 2개와 1개로 정리할 수 있었다.

둘째, 전통 도자 속 식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융합표현이 예술표현으로 발전되었음을 연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자식이 군자의 덕목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했던 부모는 자손번창에 대한 염원이 담긴 참외형 주자와 절개의 상징인 국화 형이 융합된 주자를 통해 그 염원이 성취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아들을 바란 부모는 자손번창 특히 남성을 상징하는 표주박형과 다남의 상징인 포도문장식의 융합된 도자를 원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염원은 도자기에서 융합표현을 통해 새로운 형과 장식으로 진화를 촉진시켰다. 내재된 의미에 대한 염원은 사람들에게 도자에 대한 다양한 취향을 만들었고, 이러한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이 상징성의 존재 가치를 확대하였으며, 더 나아가 한국 도자 표현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전통도자기에서 보이는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융합표현에는 민족의 정서가 녹아져 있으며, 선조들의 미의식과 삶에 대한 가치관을 볼 수 있어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도자기에 관한 융합표현과 더불어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S.W.Goh.(2009).*digital pattern*. seoul: geulnurim
- [2]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Online]. www.culturecontent.com

- [3] *Korean pattern*.(1998) Seoul :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4] K.Y.Koh (2014) *The Study on the inherent traits and symbolism in the patterns of white porcelain from the Joseon Dynas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5] S.H.Lee.(2004).*Korean Culture shown in Flowers 3*. seoul : nexusBOOKS
- [6] Won Buddhism 100th Anniversary Church (1967.10.28.). *The Great Encyclopedia of Won Buddhism* . Jeonbuk Iksan: Won Buddhism Publishing House. pp935-936.
- [7] K.J.KOOK (2006)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atterns expressed in the Koryo buddhist scripture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ajeon.
- [8] K.Y.Koh (2014) *The Study on the inherent traits and symbolism in the patterns of white porcelain from the Joseon Dynas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9] J.w.Park, Wenqian Xie, H.S.Ro, W.S. Kim. (2018) *Division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ossibilities in Craft Creation through Converg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KCS[Online]. www.kcons.or.kr
- [10] Herbert Read,(1964).*The Meaning of Art*, London: Penguin Books, , pp. 32-38
- [11] H. S. JO (2019. 12. 04) *korean melon*. INCHEONILBO[Online]. <http://www.incheonilbo.com/news>
- [12] Y.A.Hoh (2014.8).*A Study on Figurative Celadon in the Goryeo Dynasty: Focusing on Type Classification and Trend Changes*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a thesis on domestic master's degree
- [13] Y.J.LIM.(2004).*Korean traditional patterns*. seoul : YEWON BOOKS
- [14] *The Great Encyclopedia of art* (1998).The Editorial Department Of The Korean Dictionary Research
- [15] H.W.KIM(2014).*Historical approach to the convergent aspect of Korean illustration patterns*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 thesis on domestic master's degree.Gangwon.

박 중 원(Jung-won Park)

[정회원]



- 2000년 2월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도예전공 (학사)
- 2003년 2월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석사)
- 2009년 6월 : 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Cardiff, MA Ceramics 졸업
- 2015년 6월 : University of Sunderland, Ph.D. Glass and Ceramics 졸업
- 2019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pjw9357@kookmin.ac.kr

윤 승 연(Seung-Yeon Yoon)

[학생회원]



- 2019년 2월 : 한양여자대학교 도예학과 (학사)
- 2019년 2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도자공예전공 석사과정 재학중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o0_0oaaa@naver.com